

“95년은 변화물결 체감의 시기”

시장개방, 멀티시대 출현 등 굵직한 변화 예상



출판에 멀티미디어시대가 도래할 날이 멀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모습.

국내 출판인의 대부분은 95년을 세계화 체감의 시기로 꼽는다. 이번 신년특집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출판계에서 예상되는 굵직한 변화요인으로 유통시장개방과 베른협약 가입, 멀티미디어 시대의 본격 출현 등을 들고 있다. 이는 국내 출판계가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과거의 출판행태로는 더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출판유통의 현대화 다각화에 박차

우선 출판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는 변화의 영역은 유통 부문이다. 95년 1월 1일부터 서적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과 서적 및 신문 소매업에 대한 시장이 개방됐다. 국내 서점 도서도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다. 외국의 유수한 유통업체들의 국내시장에 대한 발빠른 물밑조사가 이미 끝난지 오래라는 소문과 함께 국내업계에서 나름대로의 자기책을 개별적으로 진행, 서점계는 큰 변화를 보였다.

지난해 1백백 이상의 대형서점이 전국 각지에 신설되거나 확장됐으며 소형서점은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했다. 대형서점 개장의 열기는 올해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특히 지방에서의 서점 대형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리라는 예측.

시장개방으로 인한 서점계의 대응은 서적매장과 경영방식의 혁신이라는 또다른 자기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색맞추기 일변도의 서점목록을 지양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서 목록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합리화를 꾀하거나 매장 디스플레이를 깨끗하고 산뜻하게 꾸밈으

로써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며 코너 문구매장 휴식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역할을 지향한다. 현대화 자동화의 외국자본에 맞대응하려는 서점계 움직임은 올해 역시 가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본다.

한편 대형 도매 유통기구도 자동화 현대화된 모습으로 자리잡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확정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출판유통, 뿌리와날개 등 굵직한 대형유통기구들이 본격 가동돼 국내 출판유통의 현대화·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베른협약 등 저작권 환경 일대 변화

또하나 올해 출판계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베른협약 가입이다. 세계 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제 베른협약 가입은 불가피해졌다. 새로 출범하는 WTO 회원국은 베른협약 가입과는 상관없이 저작권에 관한 한 베른협약 수준의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협정(UR TRIPs)에 따라 그 발효시기가 95년 7월 1일(유보기간 1년)로 다가옴에 따라 국내 저작권 환경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소급적용 인정여부다. 87년 10월 이전 발행된 저작물 가운데서 베른협약의 저작자 사후 50년보호기간에 적용되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소급 적용이 인정되는 최악의 경우엔 외국저작물에 대한 국내 출판계의 판도변화도 예상되는 소용돌이중의 하나다. 사

후 50년 보호기간에 해당하는 헤르만 헤세나 헤밍웨이 에릭 프롬 사르트르 말로 등 메이저 저작자들의 저작권은 몇몇 자금력 있는 출판사들의 선점 경쟁물망에 올랐다.

또한 국내 작가들의 저작권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외국자본이 밀려오기 전 미리 국내 작가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한 출판계의 물밑작업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몇몇 작가의 경우 출판사와의 독점관계 재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같은 저작권 경쟁은 출판계가 더욱 양극화하리라는 예측으로까지 이어진다. 자금력 있는 출판사들이 국내의 베스트셀러 저작자의 판권을 집중독점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리라는 예상이다. 여기에 출판의 영역이 모호해짐으로써 전문성을 추구하던 출판사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눈길도 적지 않다.

멀티미디어시대의 폭발적 변화예감

세계화의 변화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일고 있는 출판영역은 정보·멀티미디어시대의 전자출판에 관한 부분이다. 종이책의 라이프 사이클이 자꾸만 짧아지는 반면 멀티PC의 보급률은 급속하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잡지사 전화번호부 등 CD롬 환경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족시킨 정보통신부는 정보시대와 멀티미디어시대의 도래를 대비한 개편으로 해석되거나 출판도 광의의 정보유통이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리라는 예측이다.

한국전자출판협회 허창성회장은 “문자와 언어의 독재시대는 갔다.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해 엄청난 사회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만들고 있는 책이 계속 잘 팔린다는 과거집착적 생각은 위험하다. CD롬환경에 출판계가 재빨리 적응, 대량소비가 가능한 기획물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출시된 CD롬 타이틀만 해도 155종을 헤아린다. 그만큼의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암시해준다.

더욱이 외국의 선진기술과 고도의 기획력이 결합한 CD롬 타이틀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이제 걸음마 단계인 국내 전자출판 분야는 싹도 트기 전에 고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전망까지 일고 있다. 수많은 국제도서전에서도

확인하듯 멀티미디어시대는 출판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국내 출판인들이 지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판장르의 전문화 실용화 추세 뚜렷

지난해 각 분야 베스트셀러 집계에서도 드러나듯 독자의 선호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문예물에서는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추리물이 폭넓은 인기를 끌고, 비문예물에서는 소프트한 전문서와 실용서들이 붐을 이룬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더욱 분명한 추세로 나타나리라는 전망을 대부분의 출판인들이 갖고 있다.

따라서 인문 중심의 과거 출판은 더욱 다양한 장르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근 추리적 기법의 도입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소설에서는 환상소설, 도시소설, 여성소설, 철학소설 등 소재의 세분화경향이 두드러진다. 비소설에서의 장르도 비즈니스서, 건강정보, 레저스포츠, 실버출판물 등 양질의 실용정보서가 확고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문고본이 실용 정보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출판인들이 문고본시대의 도래를 점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본격 출판광고 시대의 출현도 대다수 출판인들이 예감하는 부분이다. 이는 출판사의 기업적 개념 도입과 책의 상품화와의 연결, 판매홍보의 전문화 비대화를 몰고 오리라는 예측을 낳는다. 여기에 소자본을 지닌 출판사들끼리의 컨소시엄 구성이나 기획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집단 프로덕션의 등장도 점칠 수 있는 부분. 이는 종합출판을 지향하는 메머드 출판사와 심화된 전문출판사들 그리고 군소출판사의 몰락 등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해 뜨겁게 일었던 도서대여점 문제는 그 한계점에 도달,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보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가격과 피의 회오리가 국내 출판계에도 밀려들지 모른다는 새로운 위기감도 팽배해 있다.

결국 올해는 전지구적 변화물결의 영향권에 국내출판도 많은 변화를 실감하는 한해가 되리라는 점에 출판인들은 공통의 견해를 보인다. 문제는 그러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느냐에 달렸다. 이제 출판사들은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을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온 듯하다.

—김지원 기자